

저자 (Authors)	金東旭
출처 (Source)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2) , 1980.9, 64-65 (2 pages) Korean Studies Quarterly 3(2) , 1980.9, 64-65 (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56633
APA Style	金東旭 (1980). 三國遺事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刊.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2), 64-6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3 14: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刊>

金 東 旭(延世大, 教授)

「三國遺事」가 중요한 典籍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정리는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解題도 崔南善의 初期 解題에 맴돌고, 索引도 延大의 刊行物 부록 색인이 고작이었다.

또 論文도 金煥泰 教授등 十餘편의 論文을 發表한 분도 있기는 하나 三國遺事의 專攻者는 極小數에 불과한 것 같다.

最近 東北亞細亞研究會에서 十餘名의 學者가 參加하여 1979年 慶州에서 세미나를 열었고, 그 論文들은 지금까지 十餘회에 걸쳐 「アジア公論」에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서는 이의 本格的인 研究에 着目하여 80年 5月부터 每週 2名씩 윤번 발표를 시작한 것은 대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研究陣이 大學 單位로 되어있는 것이 아쉽지만 地域的인 利點을 안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아직 發表는 되지 않았지만, 檀國大學校의 東洋學研究所에서 현재 語彙索引을 整理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研究室에서 本索引을 펴낸 것은 적절하고도 時宜를 얻은 成果라고 여겨진다. 李箕永 교수를 비롯 徐景洙, 鄭柄朝, 張忠植, 金相鉉, 李勇夫, 林東周, 黃龍植, 鄭淸泳 등 諸氏가 1年餘에 걸쳐 작성 出版하였으니 그 勞苦가 크다고 할 것이다. 총 428페이지, 主題別索引 223 페이지, 가나다索引 182페이지 三國遺事諸本 對照表 6페이지를 덧붙이고 있다.

이 索引의 底本은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所藏으로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影印한 中宗 壬申 刊本이고, 여기에 對照表만 가지면 新修大藏經 第49冊本, 東亞文化社刊 權權老 譯解本, 大洋書籍 李丙燾 譯本, 乙酉文化社 李民樹 譯本, 한국자유교양협회 李載浩 譯本까지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 索引의 特色은 역시 主題別 索引에 있는 것 같다. 이 主題別 索引으로 찾기 어려우면 가나다 順도 있으니까 찾기는 不便이 없을 것 같다.

이 主題別 索引은 論文쓰는 學者에게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 便利할 것 같다. 문제는

主題別이란 概念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索引 檢索의 勞를 덜 수 있겠으나, 전부 8,000項目 정도이니 그리 難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主題別은

1. 人名·種族名(12項)
2. 地理(40項)
3. 天文·氣象·曆數·動物·植物(19項)
4. 佛·菩薩·天帝·神衆·神仙(9項)
5. 寺院·神祠·陵·廟·塔·像(15項)
6. 宮·殿·其他建造物(10項)
7. 典籍·文書·語言(8項)
8. 神話·傳說(5項)
9. 教理·思想(7項)
10. 人體·生理·心理(3項)
11. 政治(8項)
12. 經濟(16項)
13. 社會(10項)
14. 宗教儀禮·修行·信仰(16項)
15. 書畫·音樂·文藝·風流(9項)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細部로 分類하여 작은 項目 佛教儀禮 하나만 하더라도

- ① 禮佛 ② 獻香 ③ 法會 ④ 齋 ⑤ 懺法 ⑥ 授·受戒 ⑦ 授記 ⑧ 茶毗 ⑨ 削髮 ⑩ 出家 ⑪ 創寺·佛寺 ⑫ 供養 ⑬ 其他儀禮

등으로 다시 分類하고 있으니 親切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三國遺事が 歷史書라기 보다는 佛教靈異記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佛教哲學을 專攻한 李箕永博士의 分類이니 이 項目 策정은 신리하여도 좋을 것 같다.

이 分類問題는 分類者의 視點에 따라 여러 方途가 나올 수 있다.

우선 崔南善은 說話에 중점을 두어

- 1) 建國神話
 1. 神婚神話
 2. 人婚神話
 3. 英雄神話
 4. 他界神話
 5. 地母神話

2) 民間說話

- 1. 物形說明說話
- 2. 事物起源說話
- 3. 名匠說話
- 4. 神助說話
- 5. 物化說話
- 6. 神通力說話
- 7. 龍沼傳說
- 8. 因果應報傳說
- 9. 地名·寺院등의 緣起說話

3) 愛國說話

4) 傳記說話

등으로 分類하고 있다.
다시 이를 이은 張德順 教授는

1) 神 話

- 1. 日月神話 1話
- 2. 建國神話 7〃
- 3. 國王神話 8〃

2) 傳 說

- 1. 地名傳說 64〃
- 2. 氏名傳說 29〃
- 3. 其他(樹木其他) 15〃

3) 民間傳說

- 1. 交婚·結婚(迎妃) 17〃
- 2. 懷妊·誕生說話 20〃
- 3. 忠·孝·烈 12〃
- 4. 圖讖·占卜·凶兆·豫言 26〃
- 5. 夢 23〃
- 6. 英雄·胎腹 18〃
- 7. 陰助護國 6〃
- 8. 動物登場說話 20〃
- 9. 其他 21〃

4) 佛教緣起說話

(1) 傳 說

- 1. 寺院緣起傳說 70〃
- 2. 高僧·異僧·佛徒傳說 37〃
- 3. 佛體·佛具傳說 9〃

(2) 宗教의 奇事異跡

- 1. 飛 空 10〃
- 2. 治 病 9〃
- 3. 遂 邪 5〃
- 4. 祈禳獲禮 3〃
- 5. 還 生 7〃
- 6. 神人·眞身·聖母現形 30〃
- 7. 其 他 43〃

등 510의 說話를 抽出하고 있다.

勿論, 이런 分類는 學的인 操作을 거친 것이므로 一種의 完形說話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索引에 의하여 寺刹緣起說話를 抽出해 보면 69件이 되어 張教授의 70件과 거의 吻合하고 高僧·異僧·佛徒傳說이 37件인데, 이 索引에서는 索引인 탓도 있겠지만 그 人名件名만 540件을 웃돌고 있다.

이런 點은 역시 이런 索引이 가지는 強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點을 감안한다면 이 索引의 出刊은 精神文化研究院의 存在方向을 가름질하는 重要한 業績이라 보여진다.

이 三國遺事와 類似한 것으로 「三國史記」가 있고, 이것도 몇번 試圖된 바도 있으나 보다 精密한 分類索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精神文化研究院이 發足할 때도 여러가지 試行錯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여기서는 一般個人이나 大學의 研究機關에서 할 수 있는 即興的인 것이 아니라 보다 根幹的인 文獻整理가 바람직스럽고, 이런 것을 土臺로 하여 모든 學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方向을 摸索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런 面에서 한 個人의 文集이나 典籍에 손대기 보다는 이런 綜合的이고 總合的인 業績을 主管해서 韓國學發展의 밑거름이 되기를 念願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 個人의 文集이나 稀貴典籍 같은 것은 商業性도 있고 하니 個人出版社나 各大學研究所로 돌려도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不可能한 根本的이고 基本的인 典籍에 대한 索引·目錄같은 整理에 主力했으면 좋겠다.

書評者가 寄贈받은 冊子는 「韓國學研究人名錄」(1979年)과 이 「三國遺事索引」(1980年) 뿐이어서 그 동안의 業績을 評價할 수 없으나, 前記 「人名錄」에는 마땅히 들어갈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業績인 論文·著書의 類別에 있어서도 著書만 넣고 論文이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煩簡이 不一하니 速히 增補版이나 修正版을 내어야 할 것 같다.

要是 各自에게서 申請을 받아 넣을 것이 아니라 調査해서 넣는 親切味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미스가 가끔 눈에 띈다.

또 처음에 이 申告를 받을 때 人名錄作成이란 但書가 붙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人名錄은 韓國學研究者에게 所重히 利用되고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큰 業績이 될 것은 틀림없다.

이런 發言은 蛇足으로 들릴런지 모르겠으나 當局者들은 그 責任을 痛感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國內學者의 協力을 求한다는 立場에서도 必要하리라 본다.

이 「三國遺事索引」이 훌륭한 業績이라는 데 讚辭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方向設定에 參考가 되었으면 하여 苦言을 붙인다.